

Let's Master 원자재 시장 2 금은 중앙은행의 성적표

# 금융정책 따라 금값 '요동' ... 금은 세계 경제의 거울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문제로 원자재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선물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원자재는 금이다. 원자재 전문가인 글로벌마켓포커스 자료에 따르면 6월 초 본격적으로 브렉시트 문제가 대두된 이후 2주 만에 금값이 8% 이상 급등했다. '유사시에는 금'이란 경구가 빈말이 아니다. 세계 금값 기준은 런던금시장협회(LBMA)가 공시하는 가격이다. 그런데 영문어들은 '골드 프라이스(Gold Price)'가 아니다. '골드 픽스(Gold Fix)'라고 부른다. 이 이름에 금에 대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평가로 해당 국가 화폐 신뢰도 좌우

### 美경제 호조로 달러화 강세 팬 금 매입 유인 사라져 가격 약세

영국 중앙은행 지하에 있는 LBMA의 '황금의 방(Gold Room)'은 지난 300년 동안 금 거래의 중심이었다.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인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가능했다. 물론 지금은 스위스 취리히,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등에 그 영향력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이 방에서 로스차일드가문을 중심으로 불과 5개 금 거래업체가 브레튼우즈체제의 대리인으로서 세계 금 거래를 좌지우지했다. 그 역할은 금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란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연합국 44개국이 모여 합의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의 근본이 바로 금 1온스를 미국 35달러에 고정(fix)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금 가격을 고정시키는 이유는 당시 환율제도가 금본위제였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란 당시 기축통화인 영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화를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제도다. 기타 다른 통화는 금과의 직접적인 태환이 불가능했다. 다만 이들 통화는 기축통화와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된다.

이 체제하에서 금 가격이 35.2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황금의 방'에 모인 거래자들은 시중에 금을 매도했다. 만약 34.8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시장의 유인을 매수함으로써 금 가격을 35달러로 유지했다. 이 과정을 골드풀(Gold Pool) 또는 픽싱(Fixing)이라고 하고, 결정된 가격을 픽스

도 했다. 수년 전 금 부상했다가 현재는 관심에서 멀어진 비트코인(bitcoin) 열풍도 이러한 논쟁의 아류다. 현실적으로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어렵다.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최적 통화권'이었다. 세계 지역별로 공통 통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가 주장한 이 이론은 훗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창설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실제로 아시아 통화위기가 이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2001년 공통 통화로 '골드 디나르'란 금화를 역내 기축통화로 제창한 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가치를 잘 보존하는 금의 특성을 이용해 탐욕스러운 글로벌 펀드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보자는 발상에서였다.

현재의 금시장은 성격이 많이 변했다. 뉴욕선물시장에서는 증거금 5%로 금을 매입할 수 있다. 금 1계약단위가 100온스이니 금 가격을 온스당 1000달러라고 했을 경우 10만달러의 5%인 5000달러로 금 매입이 가능하다. 소위 '페이퍼 골드(paper gold)'라고 부른다. 투기자들은 이를 이용해 가난한 투자자들의 돈을 빼가곤 한다. 불과 5%의 비용으로 가짜 매도 계약을 대량으로 내놓으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페이퍼

골드 보유자들은 증거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헐값에 펀드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 금이 단순한 통화에서 금융상품으로 변질된 이상 탐욕스러운 투기자들의 사냥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금은 중앙은행의 성적표'란 말이 있다.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다면 해당 국가의 화폐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금 매입 유인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최근 성격 변화에도 여전히 금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금을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는다 해도 금 가격을 잘 관찰하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Fed가 인플레이션 예방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는 금 매입으로 이어지며 금값 상승을 이끌었다. 흔히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때 금값은 하락한다고 말한다. 달러화에 비해 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 강세도 좋은 달러 강세가 있고, 나쁜 달러 강세가 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지만 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 달러는 나쁜 달러 강세현상을 보인다. 이 경우 금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나타나는 달러화 강세의 경우에는 금값이 약세를 보인다. 금이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캐럿(K: Karat)이다. 중동지역에서 나는 캐럿(Carob-사진)이란 식물에서 유래했다. 예언자 요한이 광야에서 캐럿으로 요기했다고 해서 '요한의 빵'이라고도 불린다. 캐럿을 말리면 보통 성인 한 손에 24개가 잡힌다고 한다. 18K란 18/24=75%의 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언자 요한과 황금.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거울인 금은 경제에 대한 예언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문용주 글로벌마켓포커스 대표

제8회 경영빅데이터분석사 2급 우수경력 이수현 씨

## “빅데이터 분야 취업 위해 도전 용어정리·큰 흐름 보는 게 중요”

“경영이나 통계, 데이터 관련 지식 이 부족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지식도 쌓았고 빅데이터를 취업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 않아 어렵지만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공부했다”며 “중요 개념이 나뉘서, 용어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고사장에서 시행한 제8회 경영빅데이터 분석사 2급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취업준비생 이수현 씨(25·경희대 졸업·사진)의 소감이다. 그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싶어 고민하다 지인의 소개로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자격증을 알게 됐다”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화두인 만큼 공부해두면 쓰임새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비전공자인 이씨가 고득점을 한 비결은 뭘까. 그는 “빅데이터 분야 관련 용어들이 익숙

들을 꼼꼼히 정리한 노트를 만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연습문제는 스티커그림에서 공부했더니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씨는 “이런 시일 안에 1급 시험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9회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2급 자격 시험’은 오는 9월3일 전국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운영사무국 홈페이지(www.bigtest.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최규술기자 kysul@hankyung.com



### 2016 청년취업아카데미

##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

한국경제신문은 6월27일 서울 중림동 본사 다산홀에서 2016년 청년취업아카데미 ‘빅데이터 소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시작했다.

개강 주간인 27일부터 29일까지는 ‘청년 빅데이터 포럼’과 ‘취업 성공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특히 최정환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빅데이터센터장과 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장(사진)이 각각 ‘공공분야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신한카드의 빅데이터’를 주제로 실전 특강을 들려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과정에는 성균관대와 중앙대, 숭실대, 광운대 등 협약대학 취업희망자 1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300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 현장탐방 등을 통해 전문역량을 쌓을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신한카드, 다음소프트, 코오롱비니트, SAP코리아, 인사이터 등 빅데이터 분야 전문 기업도 대거 참여해 청년층의 전문역량 강화와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서홍한경아카데미연구원 sriee@hankyung.com

모십니다

## 3기 클라우드 펀딩(P2P) 전문가 과정 ... 오는 12일 개강

최근 은행과 P2P금융업체 연계대출이 허용되면서 은행과 P2P플랫폼 업체의 협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한 P2P금융이 새로

운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경아카데미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 심화학습 과정을 진행합니다.

●강좌: 제3기 클라우드 펀딩(P2P) 전문가 양성 과정 ●대상: 기업체 P2P 관련 부서 임직원, 은행과 자산운용사, 투자기관 등 금융업 종사자, 투자처 발굴 및 투자자금 유치 희망자, P2P

금융에 관심있는 일반인 ●일정: 7월12-27일 매주 화·수요일 오후 7-10시 ●장소: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3층 한경아카데미(지하철 2·5호선 중정로역 4번 출구) ●문의및접수: 070-7738-5866, hk\_edu@daum.net,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ac.hankyung.com) 주회: 한국경제신문

#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한국판 ‘잃어버릴 20년’ 우려, 혁신이 답이다

일본에서 배우라

**인구감소 X 디자인**  
가게이 유스케 지음 | 15,000원

인구 절벽 시대의 진실과 해법  
미래를 예측하고 디자인하는 일본의 인구 전략 바이블!

**팔리는 상품에는 감성이 있다**  
시즈카 히사오 지음 | 15,000원

인간 의사결정의 90%는 기분  
오로지 숫자로 뒷받침하는 상품은 매력적이지 않다. 감성이 주목하라!

**생활자발심학원**  
하루호도재필 지음 | 14,000원

소비자 넘어 생활자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한 발견과 통찰을 만드는 생활의 방식!

전 세계 32개 기업의 생생한 실패 목격담

★★★★★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경영자 추천도서

**실패에서 배우는 경영**  
윤정훈 지음 | 15,000원

불황일수록 혁신하라

**창조경영의 비밀**  
양재하 지음 | 15,000원

회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다양한 혁신 사례와 전박은 생존과 성장의 길잡이, 훌륭한 성공 사례 연구

**경영을 살리는 IT, IT를 살리는 경영**  
이갑재 지음 | 13,000원

IT로 들여다본 경영의 세계  
디지털 시대의 미래경영 IT경영이 답이다. IT에 집중하라!

**혁신의 비밀**  
한익수 지음 | 14,500원

창조경영 혁신시스템 RBFS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한국형 창조경영 혁신시스템 RBFS!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 중!

문의 Tel\_ 02-3786-0182, 0643 | E-mail\_ deefu@kmac.co.kr, yejin@kmac.co.kr **KMAC**